

삼성, 갤럭시7 '부동층'에 골머리

교환율 절반도 안돼 배터리 제한 푸는 법 나와 "옴기기 귀찮다" 등 이유 교환·환불 12월말까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7 단종 사태로 환불 및 교환에 나선지 한 달이 넘었지만 '부동층'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강제 제한을 푸는 방법까지 나오는 등 '갤럭시 S7' 분위기까지 강해지는 모습이다.

23일 윤종오 미래창조과학부총리 겸 위원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갤럭시7 교환율은 32.5%, KT는 36.4%, LG유플러스는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교환율은 24.9%

에 그치는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의 갤럭시7 교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달 11일 갤럭시7의 단종을 결정한 삼성전자는 발화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갤럭시7을 갤럭시S7 시리트로 교환해주는 잔여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배터리 충전을 60%로 강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갤럭시7 구매자들은 쉽사리 교체하지 않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7이나 LG전자의 V20 등으로 갈아탄 소비자들은 예상치보다 적었다.

삼성전자의 인터페이스와 안드로이드 OS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브랜드 핸드폰으로 바꾸게 되면 손에

익었던 조작법 등을 새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갤럭시7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권오훈(30)씨는 "안드로이드 OS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아이폰7 플러스 모델을 썼는데 사용환경이 너무 달라 옴기기가 귀찮다"며 "또 갤럭시S7으로 바꾸기에는 화면도 작고 기기가 나온 지 너무 오래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인 직장인 김소연(31)씨는 "단종 전에 교체를 위해 개통 대리점을 찾은 것도 겨우 시간을 내서 했는데 또 언제 시간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냥 신규 모델이 나오는 내년까지 기기를 쓰다가 바꿀 수는 없느냐"고 토로했다.

갤럭시7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60% 강제 제한을 푸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층'은 위함을 무릅쓰고 '갤럭시7'과의 동거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정

변경(디바이스 관리)을 통해 배터리 충전 제한을 80%까지 늘리는 방법이 알려졌고, 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이전 버전으로 돌려 제한을 아예 푸는 방법까지 나타났다.

강제적으로 제한을 풀게 되면 일부 앱은 작동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방법을 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갤럭시7을 교환·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7 제품을 내년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없는냐는 질문에 "(교환·환불)기간을 늘리게 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성인 20%만 "노력하면 부자될 수 있다"

10명 중 7명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 불안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며 노력과 계층 상승의 문제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지난 8월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가계 소비 및 투자'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 상승의 기대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체 응답자의 20%만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고 한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는 의견은 10.1%에 불과했다.

직장생활만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단 6.7%에 그쳤다.

더욱이 10명 중 3명(29.5%)은 로또에 당첨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인식하는 등 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불안감도 커졌다. 10명 중 7명이 현재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대

해 불안감(매우 불안하다 25%, 약간 불안한 편 46.4%)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경제적 불안을 겪는 소비자들이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특히 여성(남성 68.1%, 여성 74.5%)과 40대(20대 69%, 30대 69.8%, 40대 75.6%, 50대 70.8%) 소비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컸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만큼 저축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명 중 7명(68.2%)이 작년 대비 올해 동안 저축을 하기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저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난해 39.4%에서 올해 47.5%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저축을 통해 소득환경이 개선되고, 가계투자가 이뤄지는 선 순환구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10년 후 수익이 가장 좋을 것 같은 투자형태로는 부동산 투자(30.8%, 중복응답)를 꼽았고,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뉴시스

1인 방송 전문 채널 '다이아 티비' 내년 개국

CJ E&M 보유 OCN시리즈 채널을 DIA TV로 변경

모바일 전용 앱으로 소통

생방송 오후 8시~10시

이외 시간 크리에이터 1000개 팀 콘텐츠 편성



23일 열린 CJ E&M 1인 크리에이터 전용 TV채널 '다이아 티비' 개국 간담회에서 뷰티 분야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메이크업 시연쇼를 펼치고 있다.

뷰티·게임·먹방 등 인터넷으로 보던 1인 창작 콘텐츠가 실제 방송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CJ E&M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월 1일 아시아 최초로 1인 창작자들이 만들어가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전문 방송채널 '다이아 티비(DIA TV)'를 개국한다고 밝혔다. CJ E&M이 보유한 OCN시리즈 채널이 다이아티비로 변경이 되는 방식이다.

다이아 티비의 슬로건은 '크리에이터의, 크리에이터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조한다.

다이아 티비는 모바일 전용 앱으로 시청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이들 생방송은 시청자가 높은 오후 8시~오후10시에 집중 편성된다.

예를 들어 생방송에서 진행자가 퀴즈 문제를 내면 시청자는 앱으로 실시간 답하면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먹방 진행자가 '오늘은 무슨 음식을 시켜 먹을까요?'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함께 방송을 꾸려가는 식이다.

생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크리에이터 1000개 팀이 만든 콘텐츠가 편성된다. 게임, 뷰티, 키즈, 뮤직, 푸

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엄선된 영상들이 마련됐다.

이성학 CJ E&M 미디어솔루션 부장은 "모바일 앱과 상호 연동되는 1인 크리에이터 전문 TV 채널은 업계에서 다이아 티비가 유일하다"며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자는 '세대(콘텐츠 세대, 16~29세)'를 주 시청층으로 하되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대중성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아티비 개국을 위해 씬님, 회

사원 A, 리무그, 레나, 강나 등 인기 뷰티 크리에이터와 밴즈, 역삼호, 신동훈, 채희선 등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CJ E&M은 이들에게 광고 배분이 아닌 출연료로 보상한다.

메이크업 방송으로 유명한 씬님은 "해외에서 한국 뷰티 프로그램이 인기다. 이를 감안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자막을 영상에 달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현지화 전략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중 화웨이, P9·P9 플러스 12월2일 국내 출시

중국의 화웨이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다.

화웨이는 23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P9·P9 플러스 스마트폰 런칭 행사를 열고 오는 12월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조니 라우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한국지역 총괄은 "P9시리즈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탁월한 선명함 및 풍부한 색감, 그리고 생생함이 담긴 촬영 기능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9 시리즈는 화웨이가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플래그십 모델로 LG유플러스와 국내에 출시하는 4번째 모델이다.

출시 7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90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화웨이의 성장을 견인한 모델이기도 하다.

P9 시리즈는 독일 명품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 카메라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라이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후면에는 1200만 화소, 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다.

자체 칩셋 기린 955 2.5GHz 64비트 ARM 기반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5.2인치(P9)·5.5인치(P9 플러스) 디스플레이와 3000mAh(P9)·3400mAh(P9 플러스) 배터리를 탑재했다.

P9과 P9 플러스에는 각각 32GB 메모리와 3GB램, 64GB 메모리와 4GB램이 탑재됐다.

P9은 미스틱 실버, 티타늄 그레이, 로즈 골드, P9 플러스는 헤이즈 골드 및 쿼츠 그레이 색상이 제공된다.

가격은 이르면 이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시 당시 가격이 75만~9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구독신청 288-9700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 063-433-8398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